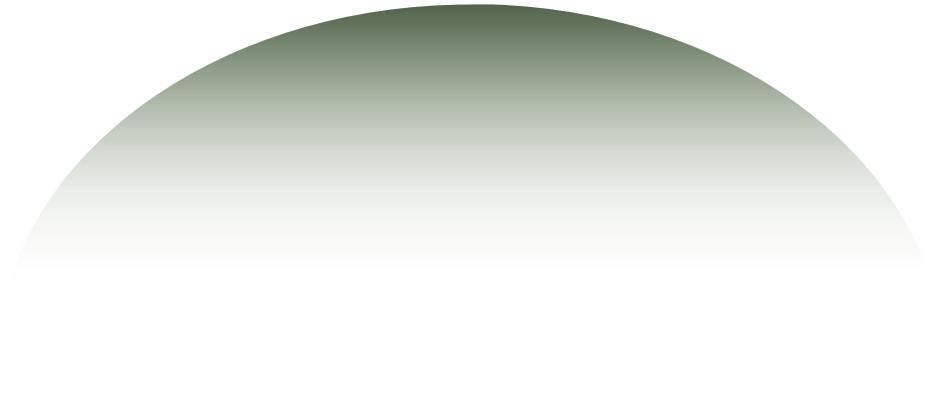


2020년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목차

발간사	4
사업 개요	6
사업 성과	7
지원 사례	9



발간사

코로나19로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공기처럼 누리던 자유가 사라졌다. 여럿이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일이 어려워졌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예배나 미사, 집회, 성모마저도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 자체가 생물다양성을 위협한 인간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연구도 나왔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것이다. 팬데믹은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특히 약한 고리부터 고통은 가중되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가난한 나라는 어렵다. WHO가 지난 5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동안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00명당 약 50회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00명당 약 1.5회의 백신만 접종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투여된 백신 40억 회분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소득 국가에 돌아갔다. 자영업자는 물론이지만 난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작년에는 이른바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붐벼되어 거주자들 대부분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태도 있었다. 정신병동인 청도대남병원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감염되었고, 7%가 사망하였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높은 밀도로 방치된 이들의 현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수자들은 온라인 환경이나 비대면 사회에도 적응하기가 어렵다. 장애인은 온라인 수업을 받기 어렵고, 노인들도 비대면 환경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해외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갈 곳이 없어졌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열악해진 사람의 문제를 직시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자 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이들의 인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 또는 연구자들, 변호사들이 모두 16건의 지원신청을 했고, 그 중 9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코로나19와 인권 문제를 고찰하는 연구,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과 인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코로나와 장애인 또는 수용자의 인권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도 있었다.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약화된 거리청소년을 긴급지원하는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장애 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문제에 대한 대응활동에도 지원금이 주어졌다.

이러한 연구 및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낸다. 보고서 전체는 매우 방대하여 발췌 보고서와 전문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기로 했다. 모쪼록 이 결과물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도 희망을 보았다. 코로나로 사람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70년 이래 가장 가파른 규모로 감소했다. 매년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했음은 물론이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하고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민낯이 드러날수록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마음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사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익인권적 접근과 고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련 공익인권활동과 공익소송,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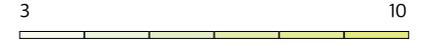
2020.10.~11.	서류 접수 및 심사
2020.11.	지원 사업 선정 및 협약식
2020.12.~2021.8.	프로젝트 수행
2021.9.	결과 발표회

지원 대상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연구 등

지원 내용 총 지원규모 5,000만 원으로 9개 프로젝트 지원
1개 프로젝트당 300만 원~1,000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지원
지원 금액은 각 프로젝트의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

사업 성과

총 지원금액 51,000,000원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권 불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5,000,000	코로나19와 인권 이슈리포트 3,000,000	코로나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8,000,000
감염병 위기와 국제인권규범상 수용자의 인권 4,000,0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역과 인권에 관한 고찰 3,000,000	코로나19 거리치소년 긴급지원 '두루두루 뺨용뺨용' 8,000,000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실태조사 아카이빙 3,000,000	코로나19와 장애 10,000,000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 7,000,000

선정기관 9개소

주제별 분류	유형별 분류	기관별 분류	지역별 분류
장애 인권 4	공익연구 6	비영리법인 3	전국 8
아동·청소년 인권 2	공익소송 및 연구 1	연구모임(TF) 3	지역 1
방역과 인권 2	공익인권활동 2	대학교 및 연구기관 3	
수용자 인권 1			

지원 사례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유형	공익연구
사업수행기관	목포대학교팀 안영하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문인권 (목포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맹준엽 (목포대학교 법학과 재학), 유재윤 (목포대학교 법학과 재학), 이지현 (목포대학교 법학과 재학)
사업 기간	2020. 12. ~ 2021. 3. (4개월)
사업 지원금	5,000,000원
사업 결과물	연구보고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학생을 기준으로 일률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비대면 학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 학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주요 법률 및 조례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장애학생의 비대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대체적으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장애 학생의 비대면 교육 운영에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장애인 교육권 실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와 국제인권규범상 수용자의 인권

사업 유형	공익연구
사업 수행기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감염병위기 수용자인권팀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은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 기간	2020. 12. ~ 2021. 7. (8개월)
사업 지원금	4,000,000원
사업 결과물	연구보고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환경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국내 법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엔 국제인권규범은 기존에 수용자에 관한 세부적인 인권 기준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수용자에 관하여 다양한 국제인권규범 문서를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국제인권규범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국내 법제에 가지는 함의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권을 확인하고, 국제인권기구의 주요 권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구 권고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입법적, 행정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아카이빙

사업 유형	공익연구
사업 수행기관	박남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신세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최호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업 기간	2020. 12. ~ 2021. 3. (4개월)
사업 지원금	3,000,000원
사업 결과물	보고서 및 핸드북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존엄한 일상 생활을 저해하던 구조적 장벽들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감염병 장기화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 현존하는 코로나19 관련 법규에서 장애인권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찾고,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장애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코로나19 관련 활동을 수합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보고서를 요약한 얇은 핸드북을 피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순한 현상 기록을 넘어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사업 유형	공익연구
사업 수행기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랑희, 서채완, 박환희, 이주희, 정제형, 조은호, 황호준)
사업 기간	2020. 12. ~ 2021. 7. (8개월)
사업 지원금	3,000,000원
사업 결과물	연구보고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고 집합금지, 자가격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의무를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벌주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 및 그 근거 법제를 분석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법처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이후에 또다시 발생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통한 방역조치가 갖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법제의 개선, 수사 및 사법기관의 관행 개선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역과 인권에 관한 고찰

사업 유형	공익연구
사업 수행기관	백경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사업 기간	2020. 12. ~ 2021. 3. (4개월)
사업 지원금	3,000,000원
사업 결과물	논문 2편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위기 관리 대응에 관한 체계, 즉 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위생 및 안전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방역과 관련된 내용과 그 위반 및 위반 시의 제재의 규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0년에 이루어진 개정 내역과 개정법률안을 검토하여 공익과 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감염병예방법에서 방역과 관련된 내용과 그 위반 및 위반 시의 제재의 규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0년에 이루어진 개정 내역과 외국의 법제 등을 검토하여 공익과 인권의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습니다.
 -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향을 설정할 때에 인권의 측면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와 장애

사업 유형	공익연구
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사업 기간	2020. 11. ~ 2021. 7. (9개월)
사업 지원금	10,000,000원
사업 결과물	국문 토론회 자료집, 영문 보고서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유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으나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속되는 또한 급변하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해당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의 결과를 국내·외에 공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본 연구결과가 현실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국문 토론회 자료집과 영문 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향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 국내 연구를 심화 및 발전시킴과 동시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본 연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업 유형	공익소송 및 연구
사업 수행기관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TF
사업 기간	2020. 11. ~ 2021. 7. (9개월)
사업 지원금	8,000,000원
사업 결과물	연구보고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가정에 고립된 아동이 학대와 재학대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가정에 고립된 아동이 학대와 재학대 피해에 노출되었던 최근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제대로 된 문제 진단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이 재학대 피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대한 공익소송을 통해, 최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 및 담당자가 적시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아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무능함과 공백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아동학대 대응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익소송 및 자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제대로 진단하고 누수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 피해에 노출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거리청소년 긴급지원 두루두루 비용비용

사업 유형	공익인권활동
사업 수행기관	들꽃청소년세상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사업 기간	2021. 2. ~ 2021. 7. (6개월)
사업 지원금	8,000,000원
사업 결과물	정책제안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위기 상황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기관의 운영은 중지되었고, 정부지원도 줄었습니다. 청소년의 위기상황은 적시에 포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청소년 위기 상황 긴급지원을 통해 신속히 문제에 대응하고, 거리청소년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거리청소년 긴급지원활동은 아웃리치 820명, 긴급지원 662명에 대해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청소년 지원 정책개선을 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긴급지원을 통해 청소년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고,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개선 제안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거리청소년에게 미친 영향과 지원정책의 부재를 정리하고, 반복될 감염병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더욱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체계의 문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동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

사업 유형	공익인권활동
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가학협의회
사업 기간	2020. 11. ~ 2021. 7. (9개월)
사업 지원금	7,000,000원
사업 결과물	연구보고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문제가 되어왔지만, 갑작스럽게 시행된 비대면 강의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의미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장애성인학생의 교육환경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내용의 정책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성인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장애성인교육권 실태조사 실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논의 및 발의,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책 제안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장애학생의 비대면서비스 접근 제한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대면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 성인장애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한 법정책 입안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JIPYONG LLC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26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으로,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에 입각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소송·중재, M&A, 기업일반·국제거래, 금융·증권·사모펀드PEF, HF,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인사·노무, 도산·구조조정, 조세,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자원·에너지·인프라,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미디어·문화, 형사, 해상·항공, 상속·가사·가업승계,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R&D, ESG업무, 해외업무, 북한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지평은 해외업무에 특화하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업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지평은 업무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두루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한 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등을 펼쳐 왔습니다. 두루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공익법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전 범으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

- 우리는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우리는 소송과 입법운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합니다.
- 우리의 활동은 변화를 만들고, 연대하며, 변화를 확산시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 법무법인(유) 지평, 사단법인 두루

디자인 박도환 @graphic.pakdo